

# 골목상권 지키기 중소기업 뭉친다

### 지역 소상공인 포럼·유통상인연합회 잇단 발족 전문가 토론 통해 현안·애로 발굴해 정책 선도

대형마트·SSM 등 대기업 유통업체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이 뭉쳤다.

공개토론회를 열고 단체를 구성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지역 중소기업단체에 따르면 광주·전남 소상공인 포럼이 12일 발족식을 갖는다.

소상공인 포럼은 지역 중소기업의 문제를 파악하고 전문가와의 토론

을 통해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 포럼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본부 소상공인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지역 중소기업인 등 100명으로 구성됐다.

포럼 발족을 기념해 이날 오후 2시 광주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도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조인형 광주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

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하며 김영호 광주상인연합회장, 김호대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장, 박기수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오는 14일에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광주지부가 출범한다.

유통상인연합회 광주지부에는 상가번영회, 광주대리점협회를 비롯한 도·소매단체 등 지역 유통업체들로 꾸려졌다.

최근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광주지역에 창고형 할인매장을 열고 단체급식 등 식자재 도매까지 진출해 위기감을 느낀 지역 도매업자들도 참여했다.

지금까지는 전통시장 상인회,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의 단체들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왔지만 지

역 내 유통상인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단체의 필요성을 느껴 이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

유통상인연합회 광주지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김용재 중소기업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시민단체 주도하에 지역 중소기업들이 움직였지만 광주지부는 이제 당사자인 상인들이 직접 나서서 만든 상인대표 조직"이라며 "전통시장상인회, 슈퍼조합과 함께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광주지부는 오는 14일 오후 5시 서구 치평동 상무리츠 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연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외지 관리 임명...토착산업화 무산

###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11>

#### 전남방직 서울이전 반대운동 ④

▲한 달 만에 재가동 기적 이뤄  
광복 후의 혼란과 과도기적 상황에서 종방의 재건을 이끌어 갈 자치위원회의 앞길을 험난했다. 공장 가동의 핵심기술을 일본인이 장악하고 있는데다 원면을 제외한 모든 원자재를 본사에 의존하고 있었고 정밀 기계부품이나 특수염료와 표백약품 등은 본사의 조달 없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됐다. 다시 땅을 울리는 기계 소리와 함께 활기를 되찾게 됐고 종방원들은 자력에 의한 공장재건에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이 같은 희망적인 상황은 얼마 가지 못했다. 1945년 10월 23일 미군이 진주하면서 공장은 또다시 찬서리를 맞게 됐다. 미군 행정관은 공장관리 책임자로 김형남을 데려와 종방 광주공장의 관

김형남의 관리인 임명은 단순히 관리인 교체라는 인사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우리 광주권이 토착자본에 의한 지역 산업화의 첫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형남은 1951년 적산(패전국 일본의 재산) 관리법에 의해 종방 광주공장을 불허받았는데 그가 공장 관리인으로서의 연구권과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종방 광주공장은 전남의 면화로부터 전남의 인력이 전남에 쌓아올린 공장이었다.

일제가 물러간 뒤 종방 광주공장이 광주·전남에 있는 일은 일이 담당했지만 종방 광주공장은 광복 후 과도기 상황 속에 외지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결국 이 회사는 광주를 등지고 만다. 만일 박무길 관리체제가 지속했다면 이 공장은 광주·전남의 토착자본을 이끌어내는 출구가 돼 광주권 산업화의 첫 밑거름이 됐을 것이다.

광주권이 맞은 첫 산업화의 기회는 차단당했고 산업화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토착자본은 더욱 폐쇄적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토지개혁으로 자본력 상실과 1950~1960년대에 시도됐던 나주호남비료와 아시아자동차 등 지역 산업화의 뼈아픈 실패가 이어지면서 광주권은 산업화의 대열에서 뒤처지게 됐다.

#### 자치위 재가동후 美와 관리자 임명 놓고 마찰

#### 본사 등 들리는 계기...광주 산업화 대열서 후퇴

그러나 이러한 난관에도 자치위원회의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적을 이루어냈다. 그것도 가동이 중단된 지 한 달만인 9월 중순에 어렵게 공장 재가동에 성공했던 것이다. 이는 자력으로 공장을 재건하겠다는 종업원들의 강인한 의지와 패전 직후 귀국이 늦어졌던 일본인 기술자들의 협조 덕분이다.

종업원들은 밤을 세워서 기계를 정비하고 백방으로 부품을 구해 조립하는 한편 일본인 기술자들을 설득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이들에게 감동받은 일본인 기술자들도 팔을 걷고 나섰다.

▲외지인 관리자 임명 마찰  
마치 메뚜기떼가 휩쓸고 지나간 듯한 공장은 재가동의 기적을 이

리자로 임명했다. 애써 지어놓은 농사를 엉뚱한 사람이 거두는 격이었다.

이에 분노한 자치위원회는 즉각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 종업원들은 외부인사 임명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미군 측과 종업원들 사이에 격렬한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김형남이 스스로 통역 임무만 맡겠다며 한발 물러서 타협을 보게 됐다.

그러나 미군정 당국은 그로부터 2주일도 안 된 11월 4일 종업원 대표인 박무길 종방 광주공장 관리인을 학동의 종방 광주제사공장 관리인으로 보내고 그 후임에 김형남을 임명했다.

▲종방의 토착산업화 기회 놓쳐

광주권이 맞은 첫 산업화의 기회는 차단당했고 산업화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토착자본은 더욱 폐쇄적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토지개혁으로 자본력 상실과 1950~1960년대에 시도됐던 나주호남비료와 아시아자동차 등 지역 산업화의 뼈아픈 실패가 이어지면서 광주권은 산업화의 대열에서 뒤처지게 됐다.



위 중 (연론인)

# 여수박람회 무료 셔틀버스 운행 금호고속이 맡는다

자가용으로 박람회장에 오는 관람객 수송을 위해 여수시 외곽에 환승주차장이 조성되고 박람회장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언제 운행된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기간 중 환승주차장에서 박람회장까지 무료로 운행될 셔틀버스 운행사업자로 금호고속과 전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할미산중부관광, ㈜하이파이가 결합한 금호고속전세버스사업과 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조직위는 여수시 외곽 6개소에 약 3만4000대의 승용차가 주차 가능한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고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박람회장으로 갈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셔틀버스는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5~7월 주중 151대, 8월 주중 및 6·7월 주말 554대가 운행되며, 개·폐막식 등 관람객이 집중되는 5월·8월 주말에는 최대 794대가 무료 운행될 예정이다.

조직위 김영현 교통운영부장은 "박람회장 인근에는 장애인용을 제외하고 주차장이 없는 만큼 환승주차장에 주차한 후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박람회장에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도착할 수 있다"며 "박람회 개최 전까지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관람객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는 올해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여수 신항 일대에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열린다.

CNN, 톤리플래닛 등이 올해 꼭 가 봐야할 여행지로 여수엑스포를 선정 한 바 있으며, 대전엑스포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세계박람회다.

세계 최초의 바다 위 전시관인 주제관, 106개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관 등 21개 전시관과 각종 체험시설, 국내 최대 아쿠아리움 등을 통해 '바다'와 관련된 전시를 선보이며, 1일 90여 회(총 8000여 회) 문화예술공연과 세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파이프 오르간 '스카이타워', 첨단 해양문화 예술관인 '엑스포디지털갤러리' 등도 볼 수 있다.

입장권은 홈페이지(www.expo2012.kr)에서 4월 말까지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입장권 한 장으로 박람회장 내 모든 전시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입속 가득 퍼지는 봄 (주)광주신세계(대표 조창현)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10일까지 '신춘 고향의 맛' 행사를 열고 유과, 강정, 잣갈 등 다양한 먹거리들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 '봉선3차 한국아텔리움' 한국건설 279세대 분양

한국건설이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봉선3차 한국아텔리움' 아파트 279가구를 분양한다. <조감도> 이 아파트는 지하 2지상12~15층 6개동으로 구성됐다. 모든 가구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로 공급된다.

단지 인근에는 문성중·고, 조봉·불로초 등 명문학교가 형성돼 있고, 제2순환도로·봉선로·백운교차로 등을 통해 광주 시내와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접한 제석산, 유안근린공원 등과 연계해 친환경 단지로 조성된다. 일조권과 통풍



성을 고려해 남향 위주의 설계,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첨단 홈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집 밖에서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가스·난방 밸브를 제어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이마트, 남구청, 남구문화회관 등 생활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다. 분양 문의 1577-8733.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Le 쿠스쿠스 패밀리 레스토랑

중이 울리면 따뜻한 음식이 나옵니다.  
당신께 드리는 **맛의 사치**

### 2012년 CUSCUS ART HOUSE

#### 쿠스쿠스 패밀리 레스토랑

광주 수완점 062-371-0011	광주 신세계점 062-360-1981	광주 상무점 OPEN 예정
------------------------	-------------------------	-------------------

**쿠스쿠스: 광주 수완점**  
 체인점 문의: 062)371-0011  
 체인점 지역: 대전, 전북, 전남, 광주